복합위기와 전환의 시대,

경제안보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23.02.09

차례

1. 세계화의 도전과 한계
2. 경제안보의 부상과 세계경제 분절화의 가속
3. 2023년 한국의 주요 경제안보 이슈
4. 한국의 대응 방향

1. 세계화의 도전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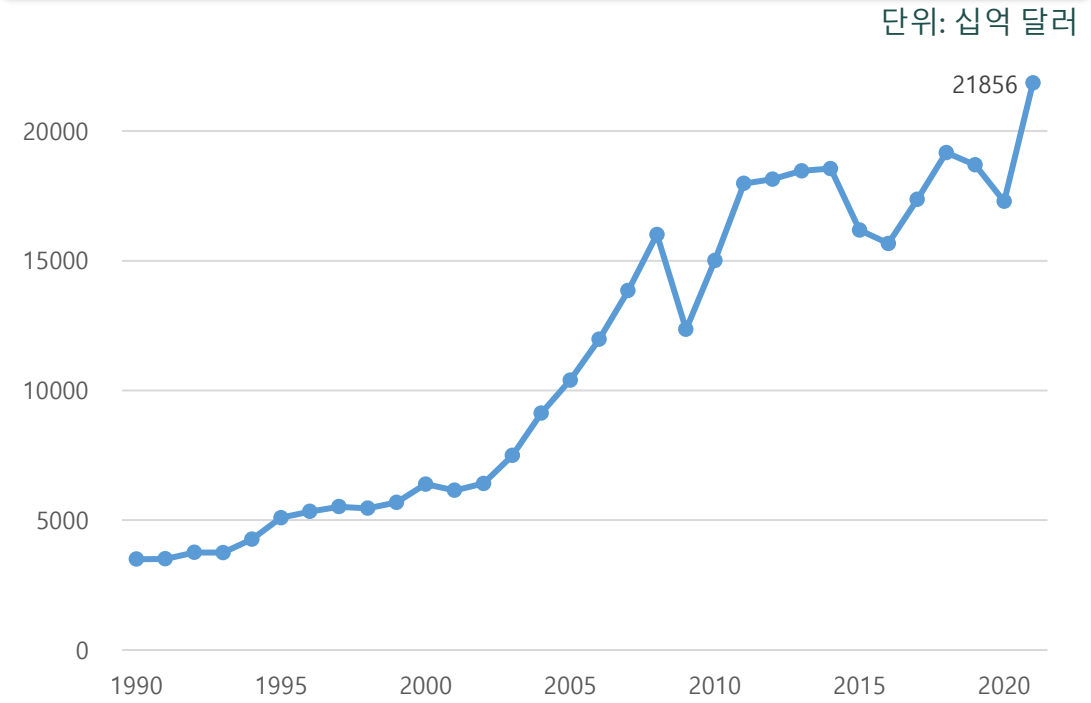
(B) 세계화의 경제적 편익(Benefit) 감소

- (과거)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상호의존성을 통해 경제성장과 평화를 유지했던 시기

  →(현재)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이 국제 문제로 전개되고 강대국 간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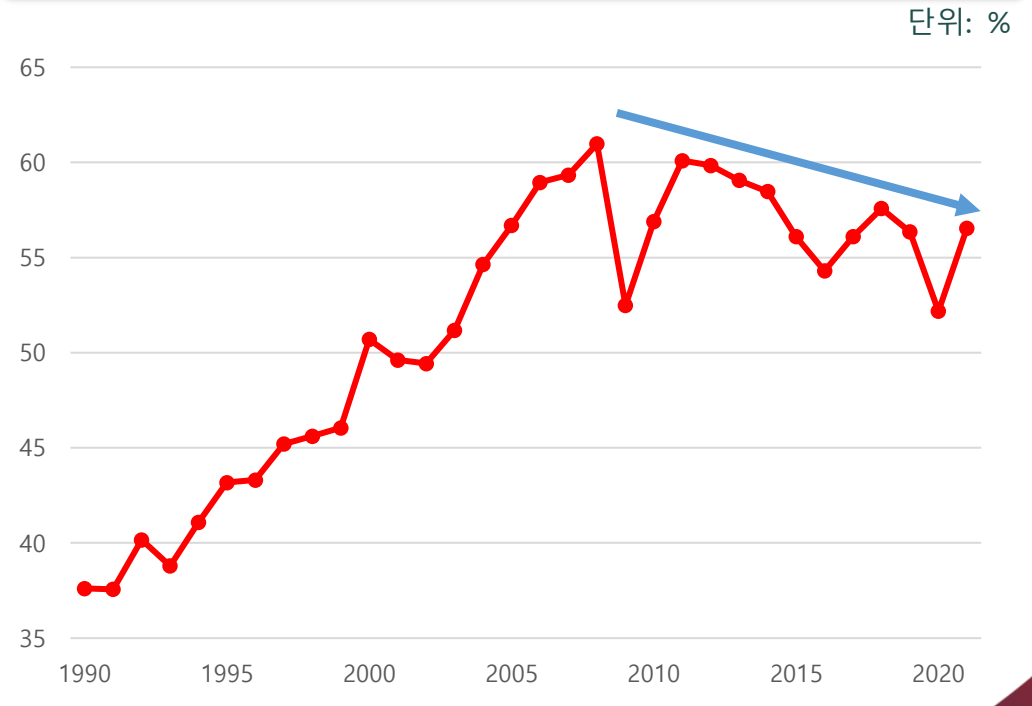
  - 상호의존과 세계화로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이 점차 둔화

세계 무역 추이(1990~2021)



자료: WTO,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trade_evolution_e/evolution_trade_wto_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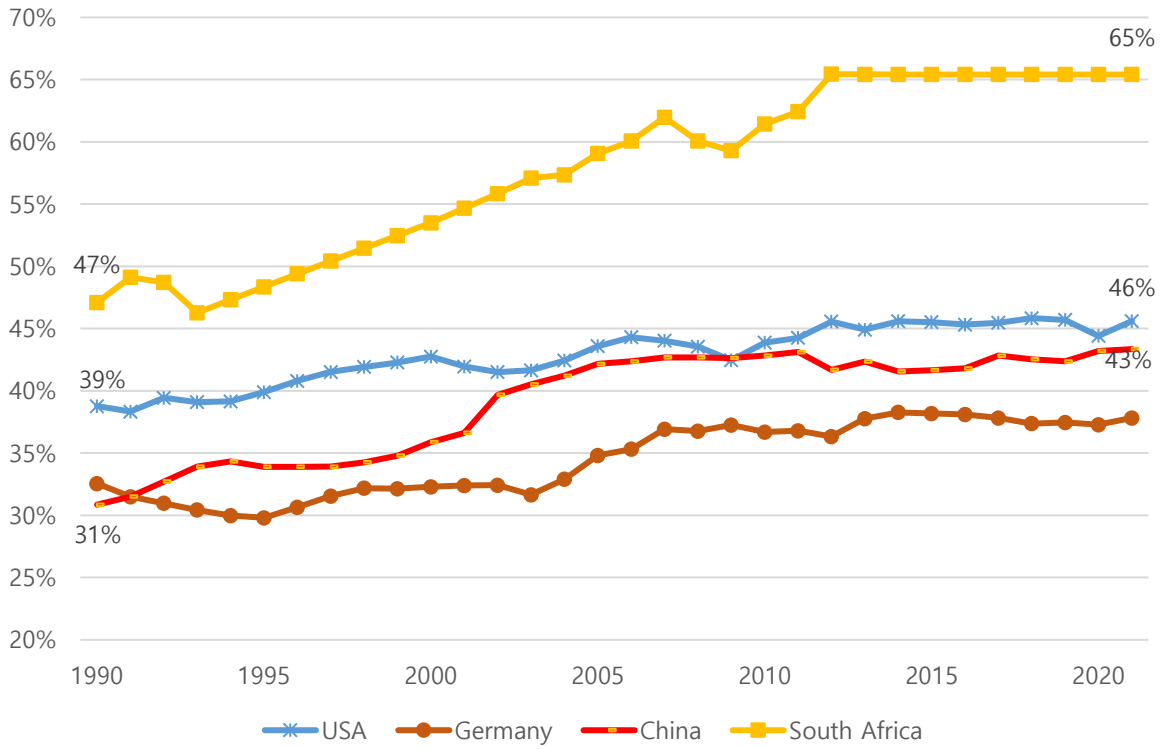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TRD.GNFS.ZS)

(I) 세계화로 인한 소득 불균형(Inequality)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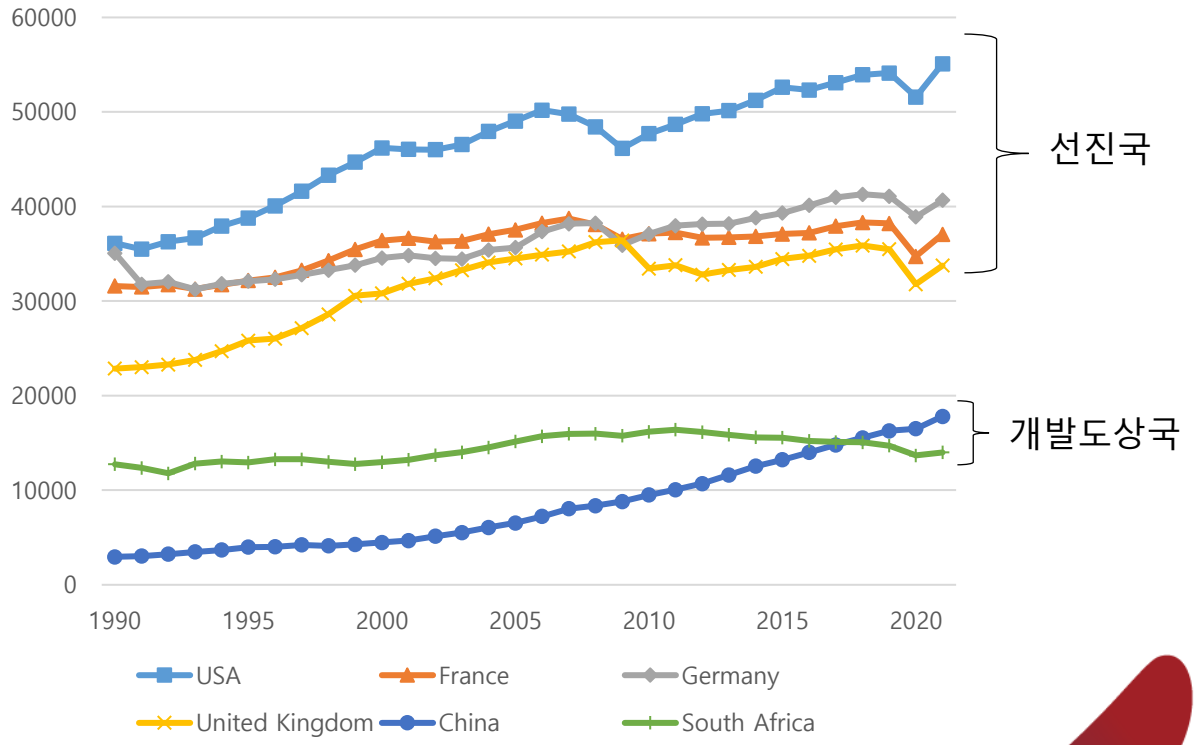
주요국의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부의 비중



주: Pre-tax national income 기준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

주요국의 1인당 국민 소득 추이

단위: Euro constant (2021),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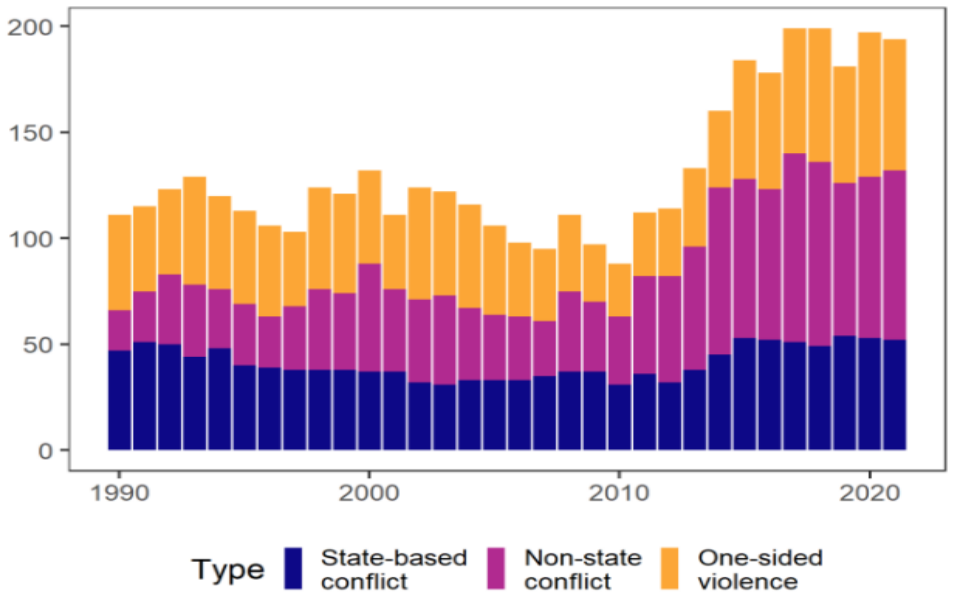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 가공

(G) 지정학적 갈등(Geopolitical Conflict)과 팬데믹 확산

2010년대 이후 Conflict 발생 증가

Figure 1 – Number of active conflicts by category, 1990-2021.



Source: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CDP)

State-based conflict: 국가간 분쟁 (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Non-state conflict: 비정규군 간의 무력 충돌(예: IS, 이슬람 국가 반란군 분쟁)
One sided violence: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예: 콩고 반군의 민간인 학살)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2) "The Global Conflict Risk Index (GCRI)" Figure 1

치명적 바이러스 발생 증가

Table 1. Serious Viral Outbreaks Over Past 100 Years

	Name	Virus Type	Year Began	Global Deaths	US. Deaths
1	Spanish Flu	Orthomyxovirus	1918	50,000,000	675,000
2	Asian Flu (H2N2)	Orthomyxovirus	1957	1,100,000	116,000
3	Hong Kong Flu (H3N2)	Orthomyxovirus	1968	1,000,000	100,000
4	HIV	Retrovirus	1981	32,700,000	700,000
5	SARS-CoV-1	Coronavirus	2002	774	
6	Influenza (H1N1)	Orthomyxovirus	2009	284,000	12,469
7	MERS	Coronavirus	2012	875	
8	Ebola	Filovirus	2014	11,310	1
9	Zika	Flavivirus	2015	N/A	
10	Ebola	Filovirus	2018	2,300	
11	SARS-CoV-2	Coronavirus	2019	4,100,000+	621,000+

2000년대
빈도수 급증

자료: White House (2021.4) "American Pandemic Preparedness: Transforming Our Capabilities"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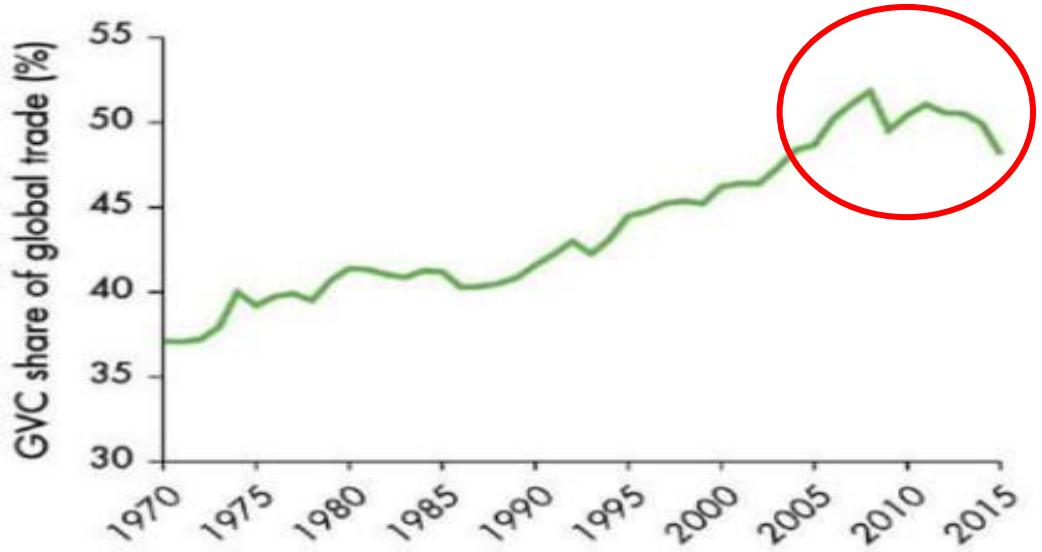
“Stagnating Trend of Global Value Chain”

- 낮은 물류 비용과 세계화 기조를 배경으로 전 세계 생산의 분절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갈등 등의 외부 충격 요인은 복잡하게 연계된 생산 방식을 저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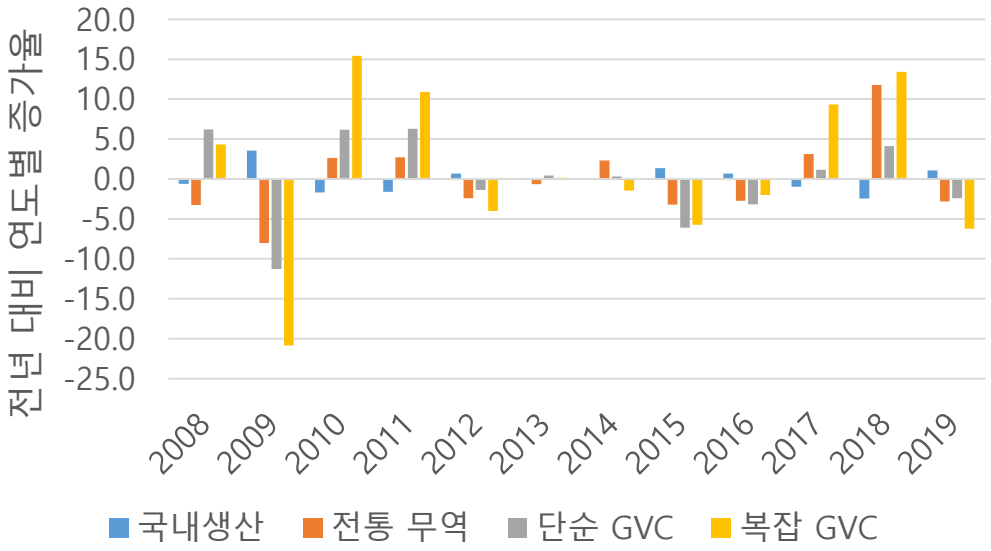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확장보다는 ‘정체’ 추세로 전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둔화와 복잡 GVC 생산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 비중 추이 (%)



생산 방식에 따른 연도별 증가율 (%)



주 : 전통 무역 = 수출국이 국내 부가가치로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 단순 GVC = 수출국의 중간재를 수출 (단, 수입국이 이를 활용하여 최종재 생산 후 소비), 복잡 GVC = 중간재를 수출 (단, 수입국이 이를 활용하여 중간재 생산 후 재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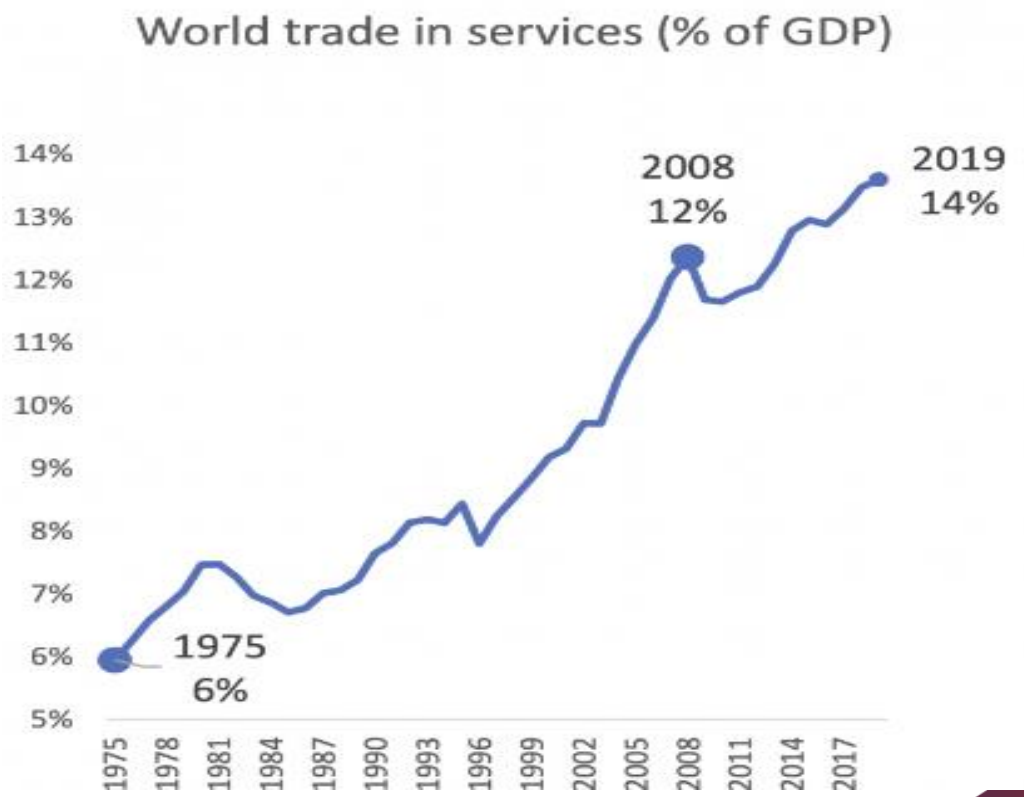
자료: World Development Report(2020), 한형민 외 (2021).

"Has globalization peaked?"

- 금융위기 이후 상품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 무역 비중은 오히려 증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변화를 상품 무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서비스 무역이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



자료: Richard Baldwin(22.9.3) 온라인자료 Figure 1 Services trade vs goods trade (% of GDP)

세계화에 관한 논쟁: 재세계화 (Re-Glob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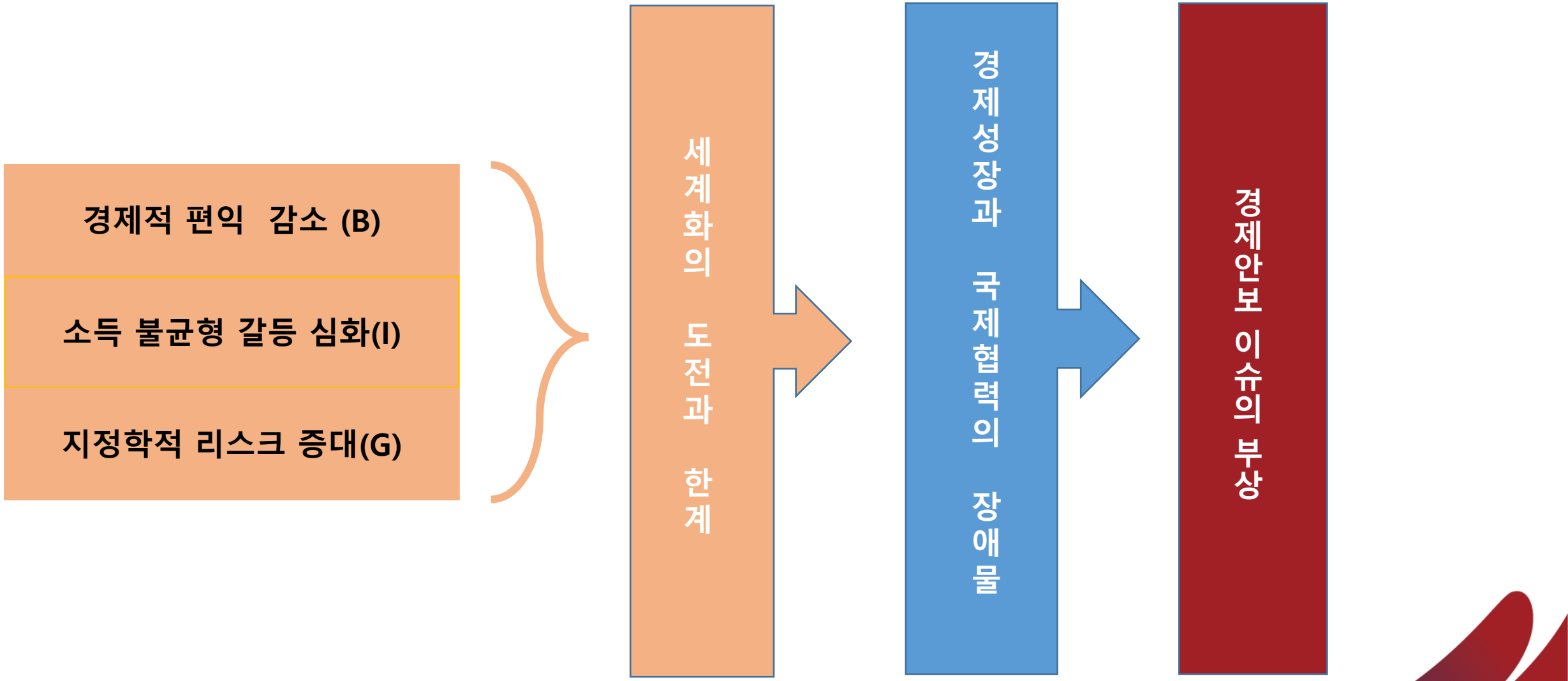
- 올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품무역 중심의 세계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
  - Niall Ferguson: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유무역 가치가 위협받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화의 종말이 아니라 문화 컨텐츠 등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재세계화(Re-Globalization) 될 것이라 예측
  - Adam Tooze: 청정에너지 전환은 세계가 상호 의존성을 갖는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것이며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

- 상품 수출을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했던 한국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직면

  ➔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기

2. 경제안보의 부상과 세계경제 분절화의 가속

세계화의 한계(B·I·G)는 경제 성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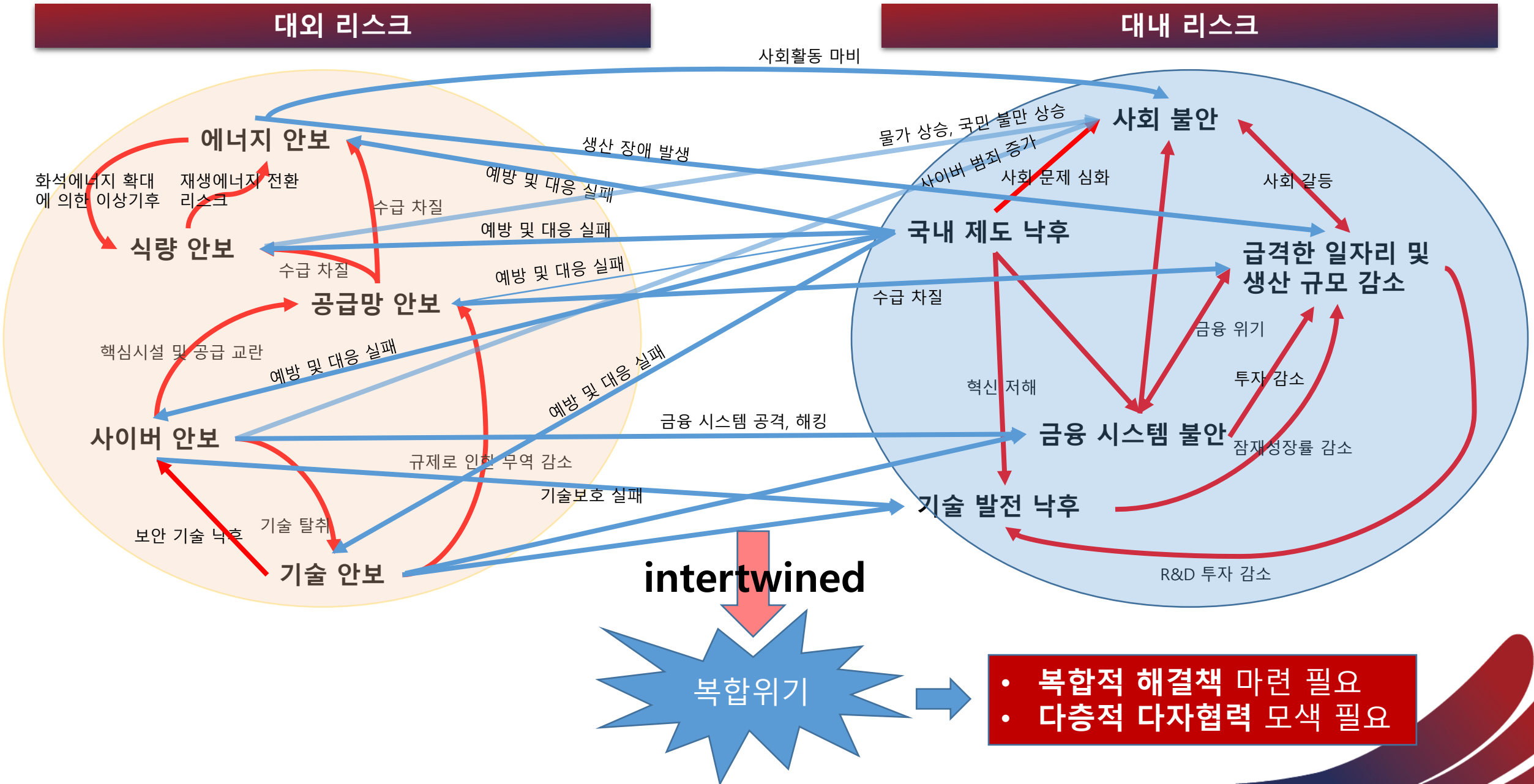
경제안보의 양면성

- **경제안보: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유무형 경제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방어**

경제안보의 양면성

- **과도한 경제안보 정책은 자국 보호주의 대두와 상호 신뢰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예1: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
  - 예2: (미국) 작년 12월, 홍콩 제품에 '중국산' 라벨 표기하라는 미국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는 WTO 판결에 반발
  - 예3: (EU) 주도권을 확보한 기후변화 Agenda를 국내 투자 유치와 산업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 (CBAM)
  - 예4: UN에 따르면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가 공식적인 산업정책 추진
  - 예5: G7 국가의 보조금 지출 증가(0.6%(`16년)➔2%(`20년)

경제안보의 복합성: 대내·외 리스크



과도한 경제안보 → 세계경제의 분절화 가속 + 재세계화 논의 차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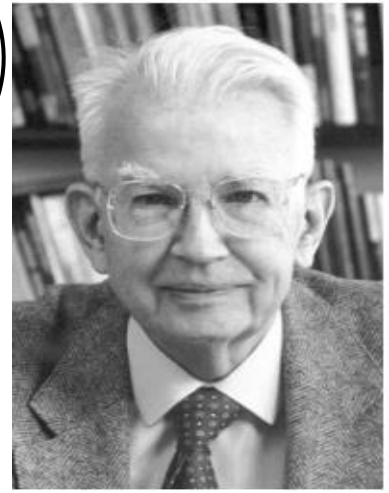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키아벨리의 약육강식 VS 코즈 이론

Niccolò Machiavelli
(1469~1572)

"전쟁은 피할 수 없으며, 이를 피하는 것은 상대에게 유리할 뿐이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Rule-Based), 주체 간의 발생한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Ronald H. Coase
(1910~2013)



세계경제는 어디?

Conflict, 힘의 논리 ← 임계점 → 시장을 통한 해결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Rule-Based" 경제체제에 대한 회의

자료: Ronald H. Coase 이미지: https://www.nobelprize.org/prizes/economic-sciences/1991/coase/facts/;
Niccolò Machiavelli 이미지: Macjoavelli Portrait of Machiavelli by Santi di Tito, https://en.wikipedia.org/wiki/Niccol%C3%B2_Machiavelli

3. 2023년 한국의 주요 경제안보 이슈

(1) 글로벌 공급망

(2) 기술 안보

(3)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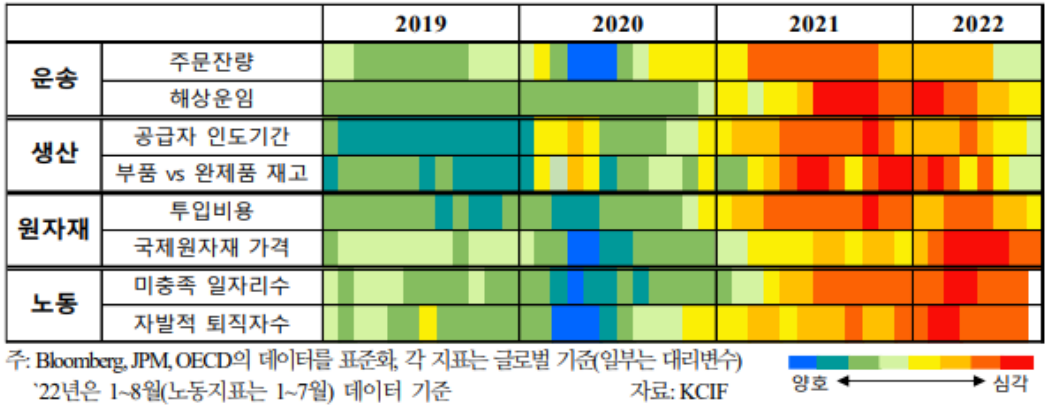
(4) 식량 안보

(5) 사이버 안보

(1) 글로벌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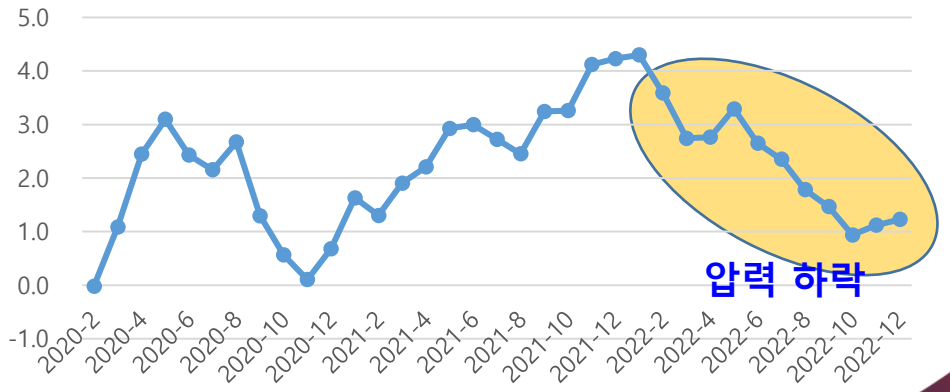
- **'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크게 증가**
- **운송·생산 부문 개선에 힘입어 완화되었으나, 원자재 및 노동 분야의 회복세는 다소 더딘 편**
  - **(운송)** 해상운임 및 주문 잔량 (Backlog) 등 주요 지표들은 지난해 다른 부문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나 22년부터 개선 중
  - **(생산)** '20년 상반기에는 팬데믹으로 일시적 차질이 컸고, '21년 말에는 재고수준과 납기 등에서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회복세가 이어짐
  - **(원자재)** 최근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되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쟁 지속 등으로 불안
  - **(노동)** 코로나19 이후 국가간 인력이동의 제한, 자발적 실업 증가 등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 심화
- **글로벌 공급망 재건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 중요성 증대**
  - 파트너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길이의 단축 추진 (제품 Module화)
  - 파트너국가들과 핵심 산업 및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 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부문별 공급망 압력 추이



자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와 전망, 국제금융센터 (2022.09.26)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GSCPI)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검색일: 2023.01.26)

(1) 글로벌 공급망: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 **(미국) '반도체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 법안 도입**

→ 보조금 지급, 기술개발 투자 및 수출제한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대중국 견제 추구

→ 미국은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전략 수립과 정책 대응이 필요

- **(08.09)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CHIPS)
  -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공급망 강화 및 중국 대응 등의 효과를 제시
  - 반도체 기업의 미국과 중국 사이 투자 결정에 영향
- **(08.16)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친환경 관련 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방향 포함

WH.GOV

BRIEFING ROOM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AUGUST 09, 2022 • STATEMENTS AND RELEASES

"It's going to give us the ability — the ability not only to compete with China for the future, but to lead the world and win the economic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July 28, 2022)

Source: White House (retrieved on 2022. 8. 31.)

(1) 글로벌 공급망: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 **(EU) '17년 '유럽배터리연합' 출범에 이어, '유럽반도체법'과 '유럽핵심원자재법' 등 입안 추진**

→ 역내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유럽반도체법 (The European Chips Act)'을 제안

→ 역내 배터리 및 부품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폐배터리를 활용, 역외국 의존도를 낮추고, 희귀광물에 대해 '유럽핵심원자재법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입안 추진

  - 반도체, 배터리 및 희귀광물 분야에서 역내 생산량 증대 및 역외 의존도 축소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일부 법안은 '23년 내 도입 가능

- **(중국) '쌍순환 전략'과 '혁신주도 성장' 정책을 활용, 국내 공급망 강화**

→ 쌍순환전략은 핵심기술 자주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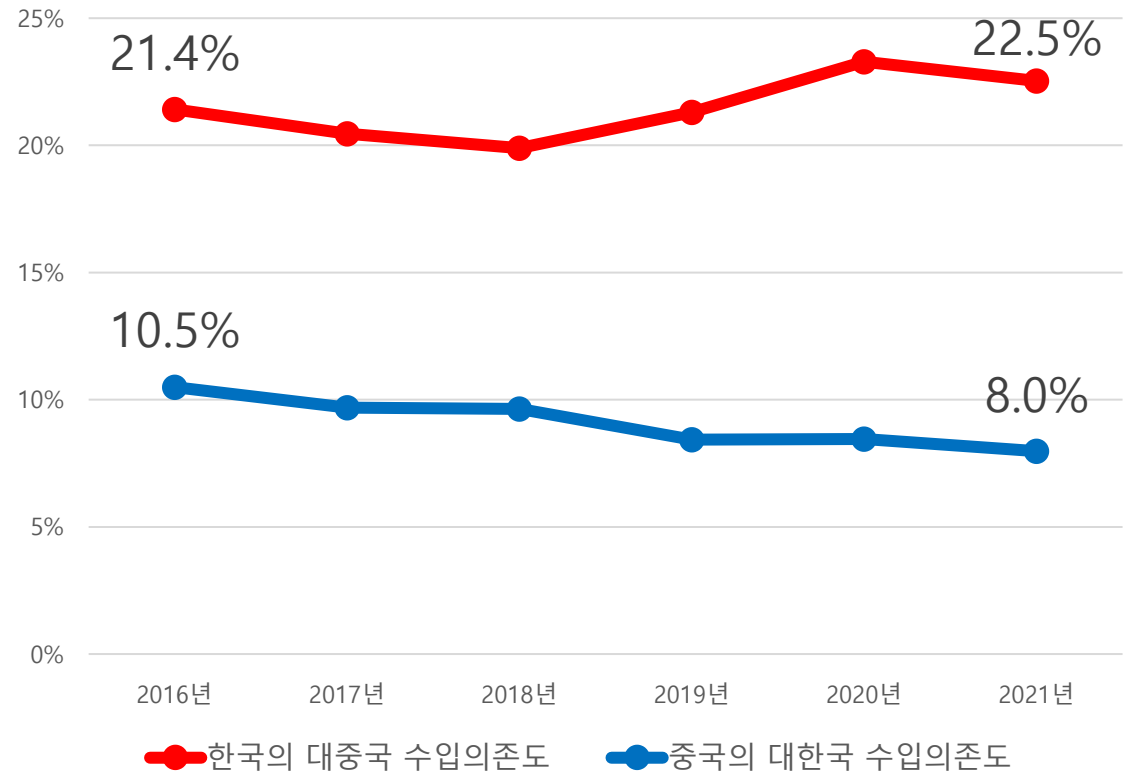
→ 혁신주도 성장 정책은 8대 과학기술과 9개 신흥산업의 육성을 통해 중국의 자체 공급망 능력 향상을 추구

  - 중국은 대규모 반도체 육성기금 ('14년, '19년)을 조성,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정부의 희토류 관리 권한을 법제화 ('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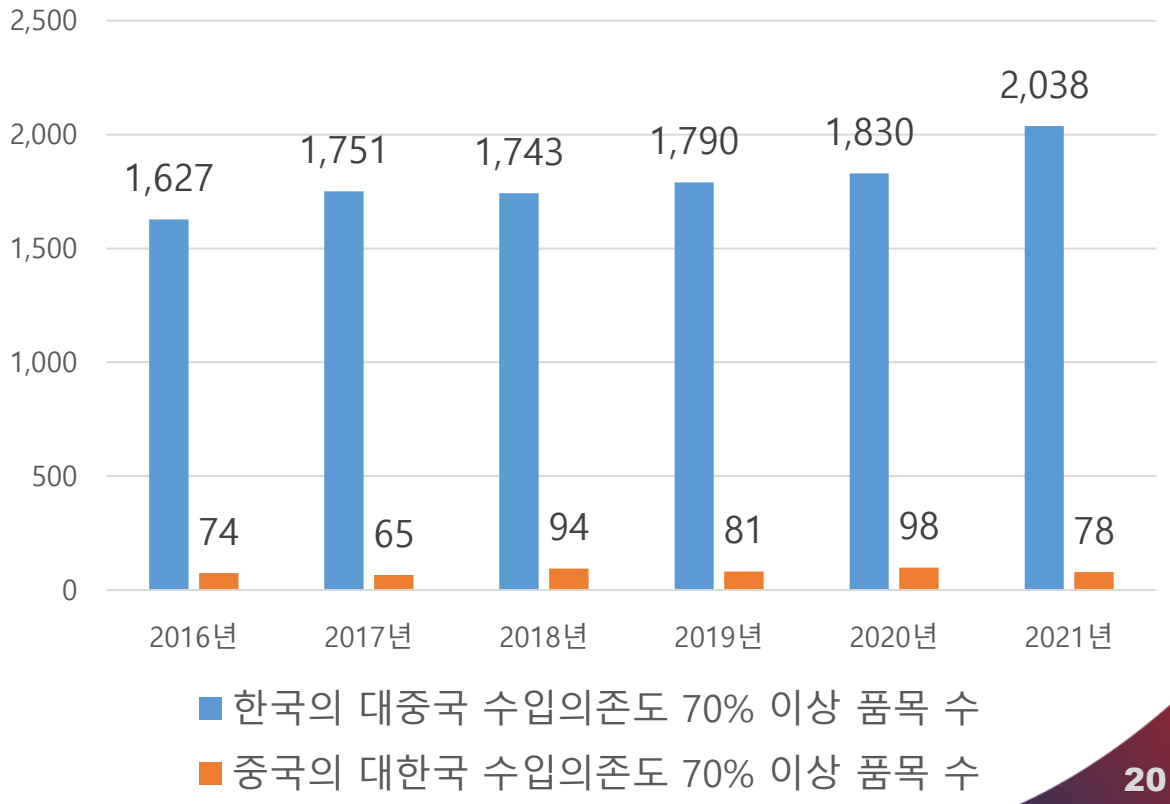
(1) 글로벌 공급망: 대중국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계속)

-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의존도가 70%이상인 품목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

한중 상호 수입의존도 추이



한중 상호 수입의존도 70% 이상 품목 수



(2) 기술안보

-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 조치로서 가치를 공유한 국가와의 기술안보 측면의 동맹을 강화 중**

→ 미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NATO, AUKUS 등 동맹국 간 협의체와 공조를 강조하며 높은 수준의 협력 필요성을 피력

미국 주도의 국제 협의체와 기술 협력의 주요 내용

협의체	내용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첨단기술 표준 협력, 데이터 통합 관리, 기술 플랫폼, 수출 통제, 중소기업으로의 첨단기술 보급화 등의 기술 협력을 위한 워킹 그룹 등을 조직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첨단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부문 협력을 목표로 삼고 있어, 향후 기술 동맹의 구심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다자간 통신안보기금	영국,일본, 호주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5G 등의 통신 보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금 조성/화웨이를 비롯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국 통신 장비업체를 견제

자료: 국회도서관(2022), pp86-87 의 내용을 일부 인용

(2) 기술안보: 한·미 핵심기술 개발 추진

- **미·중 경쟁 심화 속 한·미간의 첨단과학 분야 공동연구 및 핵심기술 협력 가속화**

→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를 양자·바이오·우주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대

→ 미국은 안보적 차원에서 타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던 민군 겸용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짐

한미 정상회담(22.5.21) 에서의 주요 기술 협력

기술 협력 분야	주요 내용
첨단기술	·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자율 로봇 등 핵심 및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
국방·에너지·원자력	· 국방 상호조달협정(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에 대한 논의 개시 가능성 언급 · 농축우라늄, 화석연료 등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 ·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원전 수출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우주	·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미국 연방정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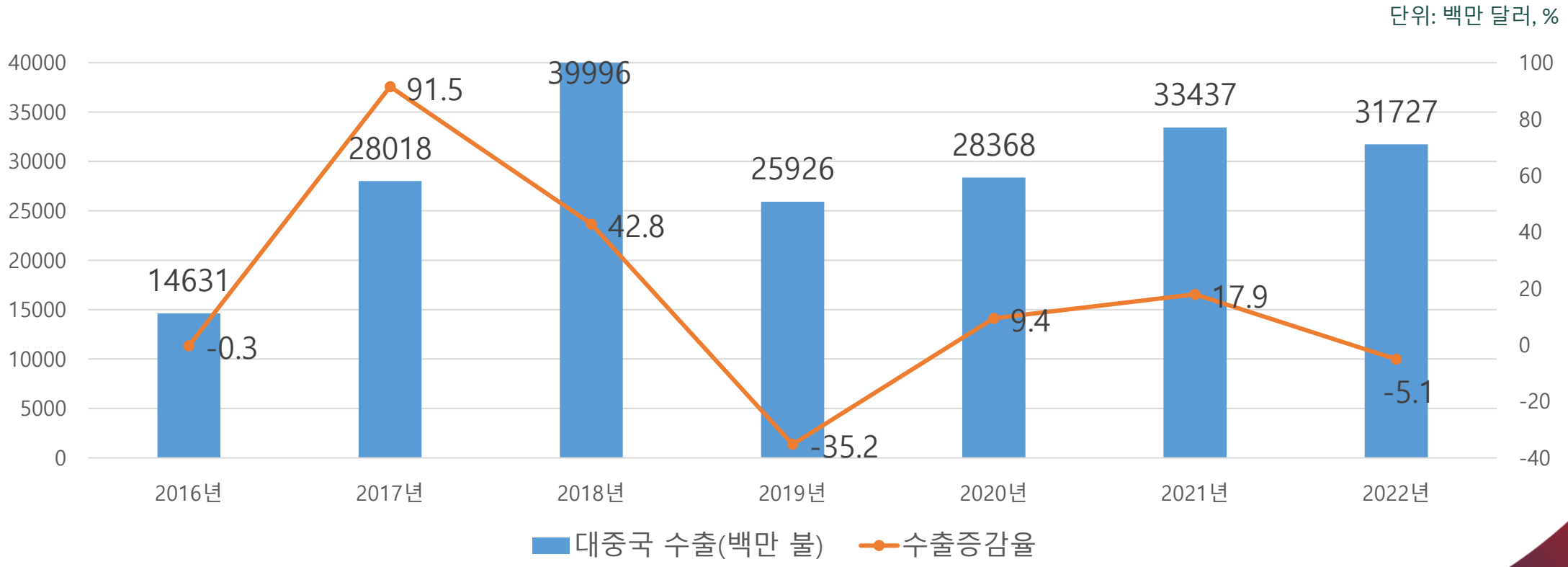
자료: 강구상, 김다울, 김종혁, 권혁주, 박은빈 (2022)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pp.6~9의 내용을 정리

(2) 기술안보: 기술 투자를 위한 시장 확보

- **(대중국 반도체 수출) 한국의 기술 경쟁력 유지 및 원천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

→ 사례: [반도체] 과도한 대중 수출 의존도는 지양해야 하나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수입 시장(2022년 기준 한국 메모리 반도체 대세계 수출의 51.3%를 차지, 1위)으로서 대중국 수출은 중요

한국의 대중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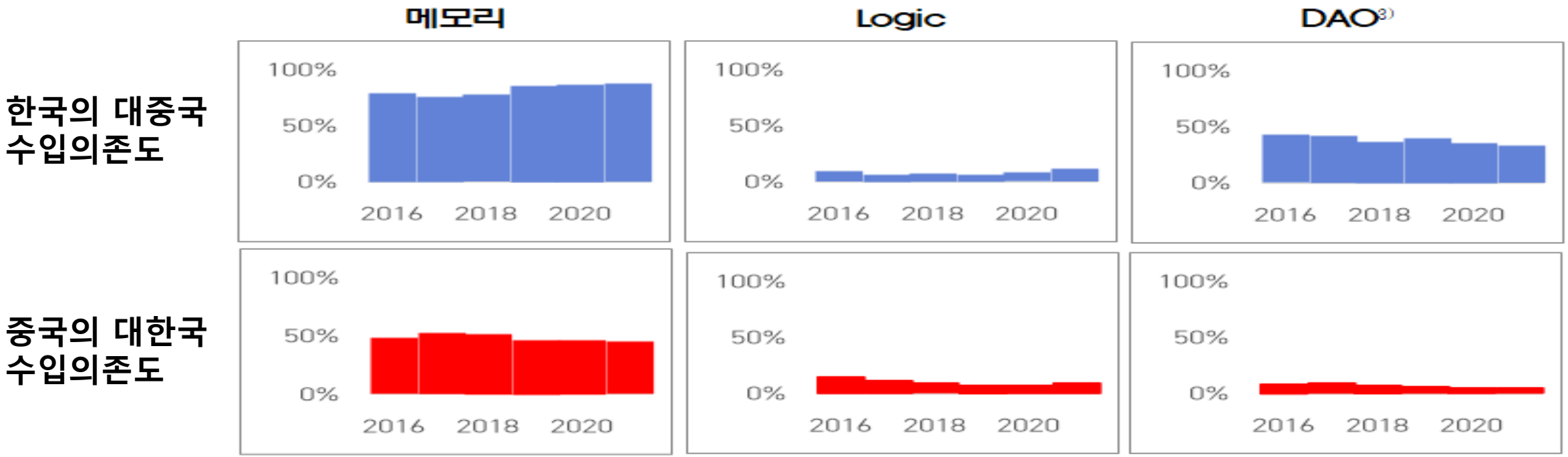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HS 854232를 기준으로 작성

(2) 기술안보: 한·중 기술보호 강화 필요

- **기술보호**는 한·중간 기술격차를 통한 산업 협력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 사례: [반도체] 한국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메모리를 중국에 수출하고, 수출된 메모리는 중국 현지 후공정을 통해 완성되어 한국으로 재수입되는 생산과정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음

주요 반도체의 한중 상호 수입의존도(2016~21년)



주: DAO는 아날로그, 전력반도체 등 가격이 저렴하고 단순한 기능을 구사하는 반도체 (Discrete, Analog, Optoelectronics) 를 의미

(3)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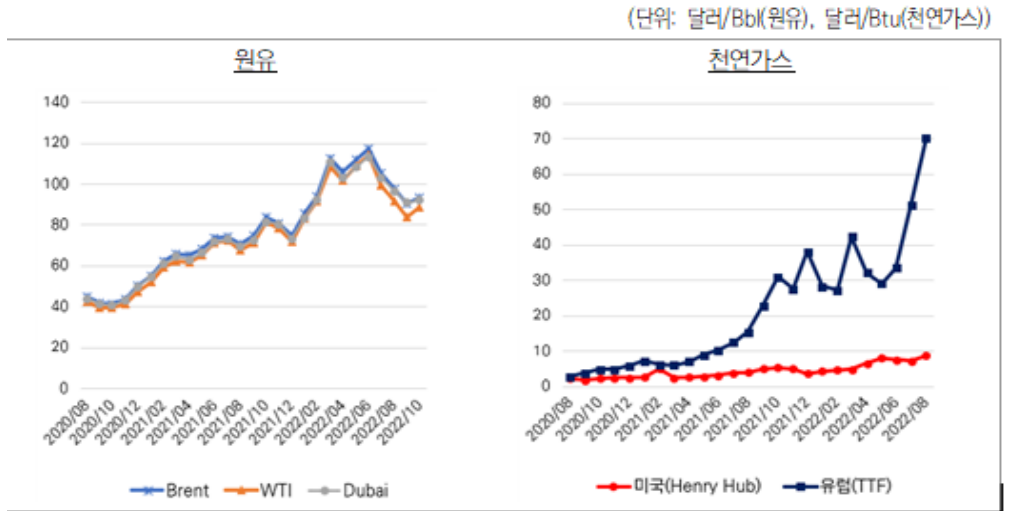
- **생존의 문제로서 기후변화 대응 강조**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1)에 따르면,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이 없다면 2040년에 지구온도가 1.5℃ 상승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상 기상현상의 강도 및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녹색 전환 가속화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 러-우 전쟁 직후 2022년 3월 원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증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7배 급증
  - 유럽은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일부 안정

각 국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탄소중립을 법제화(21개 당사국, 노란색), 정책문서에 명시(49개 당사국, 파란색), 정치적 선언(19개 당사국, 주황색), 미제출국(108개 당사국, 회색).

료: Climate Watch, Net-zero Tracker https://www.climatewatchdata.org/net-zero-tracker(검색일: 22.12.2.).

전세계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 변화(20~22년)



주: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Henry Hub 현물가격 및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기준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일일국제원유가격", 온라인 자료; Statista, "Monthly prices for natural ga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rom January 2014 to August 2022,"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10. 13).

(3)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계속)

- **(미국)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초당적 인프라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한 넷제로 실현 목표**
  -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 목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목표)
  - 「**초당적 인프라법**」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전력 인프라,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적응(이상기후 대응 등), 전기차 충전소 등을 위한 신규 투자를 포함하며, 에너지부는(DOE)는 이를 근거로 60개의 사업을 수행 중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약 3,690억 달러의 투자를 포함,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에너지 비용 절감 △청정경제 구축 △온실가스 감축 등에 활용 예정

- **(EU)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소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략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유럽 그린딜 통한 넷제로 추진**
  - 2019.12 유럽 그린딜을 통하여 청정·순환경제로의 이행 로드맵 완성하였으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하여 역외국가에 EU 수준의 탄소감축 노력 유도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2021.7, Fit for 55) 발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 12개 입법안 제·개정과 기금신설을 포함
  - 원전은 EU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었지만 친환경성 인정과 활용에 있어서는 주요국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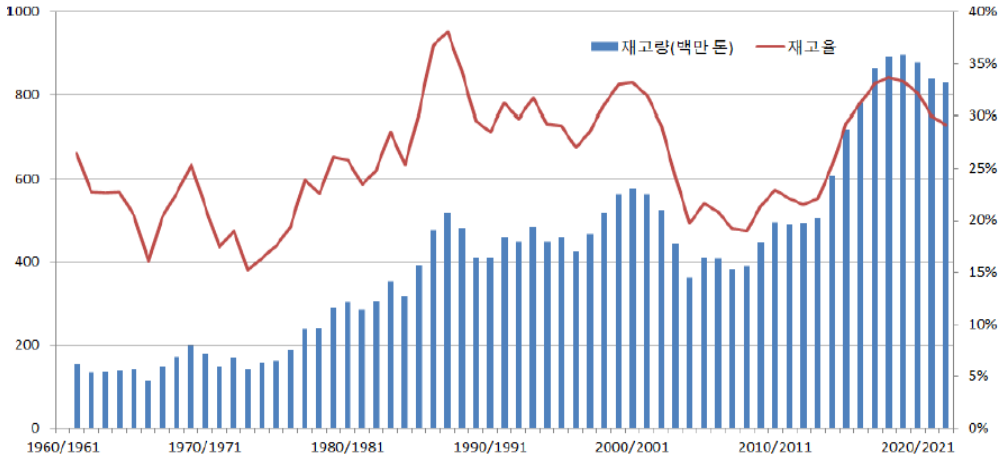
[참고자료] **RepowerEU** : EU는 러-우 전쟁 이후 단기적으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낮추어 친환경 전환 가속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

(4) 식량 안보

- **세계 식량 재고는 충분하나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추세**
  - 세계 식량 재고율은 FAO 권고치인 20%대를 상회
  - 그러나 세계 전체 옥수수 재고량의 약 70%, 밀 재고량의 약 50%를 중국이 보유하여 공급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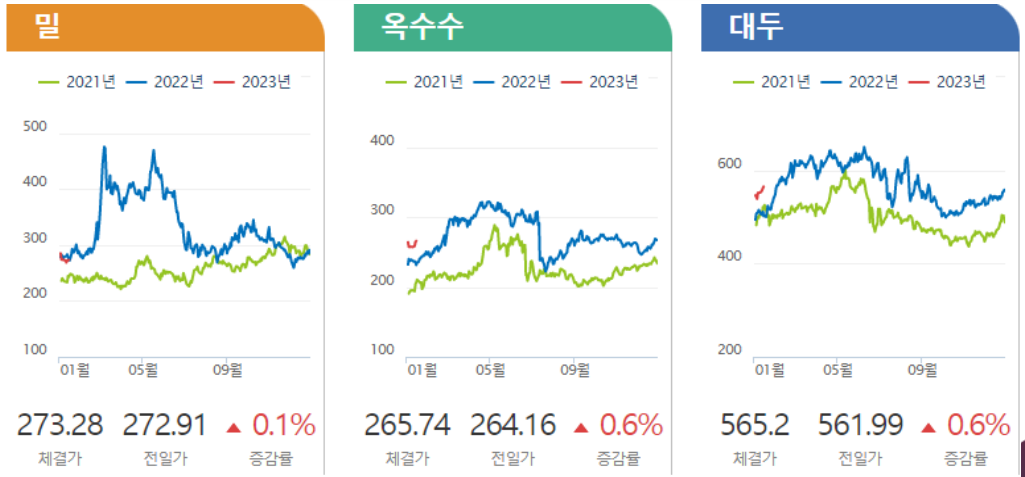
- **농산물 가격급등(Agflation) 이후 식량의 안정적 확보 중요성 증대**
  - **(기후)** 유럽, 미국, 인도, 북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의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 충격 발생
  - **(수요)** 중국의 식량 생산 정체 및 수입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 (특히 중국의 대두 자급률이 20%에 그쳐 의존 심각)
  - **(유통)**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물류 장애 발생
  - **(수출통제)** 2022년 식량 및 비료에 부과된 수출제한조치는 57건이며, 이 중 45건이 러-우 전쟁 이후 부과 (한국무역협회, 2022), 칼로리 기준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17%가 영향을 받음 (IFPRI, 2022)

세계 곡물 재고량 추이



자료: USDA PSD

곡물 선물가격 동향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검색일: 2023.01.18)

(5) 사이버 안보

- **기술탈취의 주요 수단이자 대응책의 부재**
  - **2017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간 적발한 산업 기밀 유출시도는 총 99건으로, 모두 성공했다면 22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산 (국정원)**
  -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 정보통신. 기계 각 8건으로 한국 우위 산업이 주된 표적

사이버 안보의 주요 특징

특징	내용	사례
지능화 및 고도화	무차별적 단발성 공격과는 다르게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특성 (APT)	중국의 인민해방군 산하 해킹조직이 3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US 스틸 등을 해킹 러시아 SVR과 관련된 Cozy Bear 해킹조직이 2010년 미국 국무부 등 200여 기관과 IT업체를 해킹
대상의 광범위화	협력업체나 IT시스템 관리 업체 등을 1차 해킹한 후 표적에 우회 침투	중국 정부의 Hafnium 해킹그룹이 2021년 MS Exchange 서버를 해킹하여 미국 3만 개 기관의 이메일을 탈취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확산	핵심기술. 정보 탈취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확산	중국의 인민해방군 산하 해킹조직 및 APT10, 러시아의 APT28 등 국가 또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이 국방, 외교, 군사 등 전통적인 안보분야 정보수집에서 벗어나 금융, 통신, 생명공항, 원자력 업체 등 산업기술을 탈취
기술탈취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공격 심화	ICT분야를 넘어 바이오 등 연계 산업으로 공격 영역 확대	코로나19 이후 백신, 치료제 방역기술 확보를 위한 공격 증가
대응책의 한계 및 부재	책임 귀속 및 기소가 어려움	2015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에서의 사이버 공격 논의

4. 한국의 대응 방향

재세계화 논의 가속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정한 Rule-Setting에 기여 통해 자유시장 질서 회복을 추진**
  -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Resilience를 갖추기 위해서는 **like-minded countries간의 국제협력**이 필수
  - 미·중 경쟁의 장기화로 향후 세계질서가 불확실한 가운데 **국제연대를 통한 Rule-based 시장질서 회복에** 기여

자료: 신성호(2023.1.19) "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3) 미중 갈등과 신 국제질서" 그림 1 ***재인용***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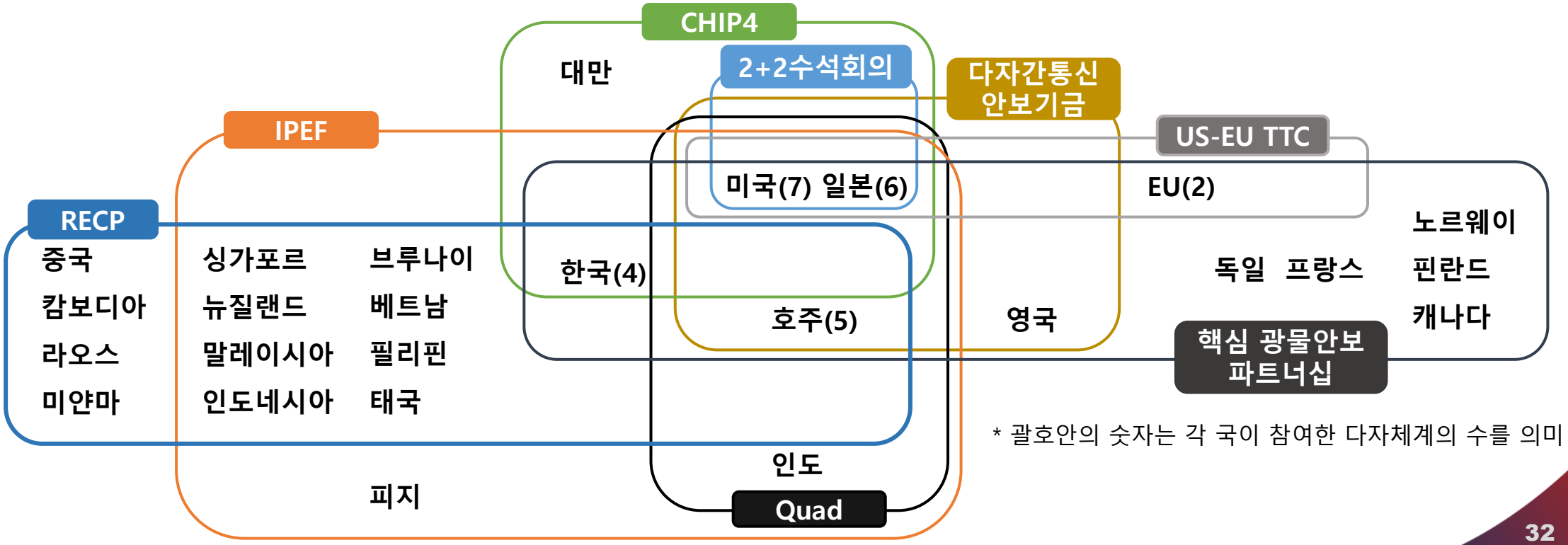
- 주요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치에 주목 → **다층적 다자협력체제** 강조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요약

국명	명칭	목표	원칙
미국	Indo-Pacific Strategy	가치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구체화	자유, 개방, 연결, 번영, 안전, 회복력
EU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 **EU :** 인태지역 내 관여 및 협력 확대 통해 규범과 다자질서 유지 • **회원국:** 프랑스(전통안보), 독일(경제협력)	인권, 안전, 개방, 포용
일본	Free and Open Indo-Pacific	미국 및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국제규칙 제정 및 인태지역 연결성 강화	자유, 개방, 연결, 번영, 안전
인도	Indo-Pacific Ocean initiative	해양안보 질서를 구축함과 동시에 해양 경제의 흐름을 유지	안보, 역량강화, 협력, 지속가능 개발, 해양 참여
아세안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해양협력,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경제협력	개방, 포용
대한민국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	포용, 신뢰, 호혜

경제안보 다자체계 구축 현황에서의 한국 위치

- **한국은 국가적 창의력과 집단지성을 통한 다층적(multi-layered) 다자체계 추진이 중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및 공급망 협의체는 미국(7개), 호주(5개) 및 일본(6개)을 중심으로 중국 배제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며 한국은 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4개)
  - 한국은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아세안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로서 **다자주의 회복이 국익에 필수**
  - 따라서 한국의 대외 전략은 특정국 배제가 아닌 **다층적 협력**을 통해 **모든 이해 당사국 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



* 괄호안의 숫자는 각 국이 참여한 다자체계의 수를 의미

자료: 국회도서관(2022), pp86-87 바탕으로 저자 정리

대응 방향: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다자체제 회복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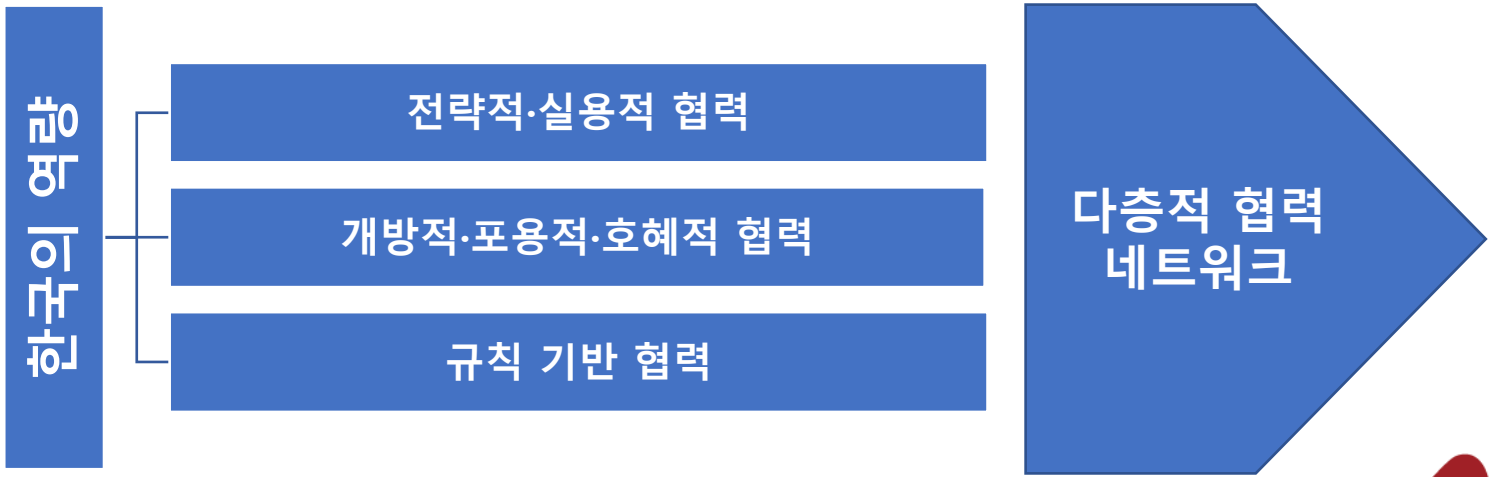
- **한국은 첨단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수행**
  - 국제질서 회복을 위하여 규칙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다층적으로 참여
  - 미·일·호주와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신성장축인 아세안 ·인도와는 균형 있는 협력 확대가 필요
  - 국익에 기반한 일관된 협력 원칙 수립과 국가 별 차별화된 전략 마련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

중점과학기술 선도 분야

분야	번호	중점과학기술명	기술 수준 그룹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에너지·자원	74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	선도	96.0	0.5
ICT·SW	106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	선도	95.0	0.8
ICT·SW	107	대면적·초고속·초정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 및 장비 기술	선도	95.0	0.5
기계·제조	31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기술	추격	90.0	1.5
에너지·자원	77	고효율 전력수송 기술	추격	90.0	2.0
에너지·자원	81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추격	90.0	1.0
ICT·SW	104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기술	추격	90.0	1.5
ICT·SW	118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기술	추격	90.0	1.0
환경·기상	94	고효율 친환경 Non-CO2 온실가스 저감 기술	추격	88.5	2.3
에너지·자원	85	원자력 에너지 기술	선도	88.0	4.0
ICT·SW	119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추격	88.0	1.3

자료: KISTEP(2021),『2020년 기술 수준 평과 총괄본』p.32

협력 방향



분야별 협력 방안

- **(공급망)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IPEF 참여 등 다자주의 회복에 기여**
  -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 추진 필요
  -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가능성이 크기에 다수의 국가와 전략적 공급망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기술 안보) 기술 동맹 네트워크의 주요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 기술 개발 등 협력 강화 필요**
  - 일본, 호주 등과의 기술 협력,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
  - ICT 및 연구투자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기술표준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 (대외)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
  - (국내) EU CBAM에 대응하여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 보고를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 준비
- **(식량 안보) 생산기반의 확대,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 조달 시스템 진입 등 중·장기 대응 수단 마련 필요**
  - 한국의 식량안보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하여 선진국-개도국 간 상호 호혜적인 식량 안보 전략 추진
- **(사이버 안보)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 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적 실천 논의에 적극 참여 필요**
  - 한국은 'NATO 사이버방위센터 (CCDCOE)'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미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과 한 단계 발전된 협력 추진

감사합니다